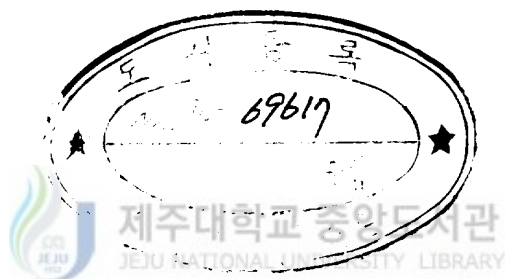


碩士學位請求論文

意思疏通能力 伸張을 위한 英語發音指導

指導教授 金 鍾 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成 昌 範

1992年 8月

意思疏通能力 伸張을 위한 英語發音指導

指導教授 金 鍾 勳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咸 昌 範



咸昌範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2年 7月 日

審査委員長

黃 亨 澤

審査委員

김 봉 근

審査委員

金 鍾 勳



〈抄 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영어발음 지도

咸 昌 範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英語敎育專攻

指導敎授 金 鍾 勳

본 논문은 영어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영어발음지도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다. 영어발음교육을 의사소통능력 신장과 관련시켜 소위 의사소통 전단계 활동과 의사소통단계 두 단계로 구분하여 올바른 발음지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즉 학습자들로 하여금 언어형식을 주로 인지시키는 의사소통 전단계에서는 개별 분절음을 주로 지도하게 되는데, 고립된 단어나, 구 또는 문장 속에 포함된 분절음을 최소대립어 변이음등을 통해서 지도하고자 했으며 언어의 기능적, 사회적 의미를 주로 터득케 하는 의사소통 활동단계에서는 개별음 자체보다는 초분절음이 지니는 의미중심으로 초점을 두고 지도함으로써 영어교육의 목적과도 부합되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기하고자 했다.

의사소통 전단계에서는 교사는 최소 대립어를 중심으로 정확한 분절음에 대한 조음위치 조음방법 등을 학습자들에 숙지훈련케 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단계에서는 영어의 초분절음 요소들을 학습자들에게 인지시켜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분절음의 요소, 즉 강세, 연접, 리듬 음도등을 실제 지도하는 방법을 설명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어학습시 정확한 영어발음 숙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여러가지 노래나 게임 등을 통해 지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발음을 인지하게 되어 흥미유발은 물론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목 차

I. 서 론	1
II. 의사소통 능력과 발음교육의 단계	3
1.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	3
2. 의사소통 활동의 단계	5
3. 발음교육의 단계	6
III. 의사소통 전 단계의 발음지도	9
1. 분절음 단독 발성 지도 활동	9
2. 상황부여 분절음 발성지도활동	11
1) 단어속에서의 지도	12
2) 어구속에서의 지도	14
3) 상황단서가 있는 문장속에서의 지도	14
4) 전체 문장속에서의 지도	15
IV. 의사 소통 단계의 발음지도	19
1. 초분절음의 인지 활동	19
2. 초분절음의 지도활동	21
1) 강세의 지도 활동	21
2) 리듬의 지도활동	28
3) 연접의 지도활동	31
4) 억양의 지도활동	33
V.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실제지도	39
1. 영어발음 지도상의 유의점	39

2. 지도의 실제	39
1) 게임을 통한 발음지도	40
2) 노래를 통한 발음지도	41
VI. 결 론	43
참고문헌	46
Abstract	48



I. 서 론

이 논문의 목적은 영어 학습자의 의사 소통 능력 (communicative competence)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음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

최근의 외국어 교육 이론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언어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이른바, 의사 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영미인과 만났을 때 영어로 적절히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영어 교육 이론에서도 영어 표현의 기능적, 사회적 의미를 중시하고 그에 따른 의사 소통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실에서 의사 소통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 (learner-directed)으로 과제나 상황을 부여하여 기능적 의사 소통 활동과 사회적 상호 작용 활동을 시키고 있다.¹⁾

그런데 오늘날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교육은 주로 언어 형식보다 의미에 강조점을 둬으로써 자칫 의사 전달에서 일차적으로 중요성을 지니는 발음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다.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영어음을 귀로 듣고 (hearing), 들은 음을 식별할 수 있으며 (identifying), 그 음을 다시 정확하게 생성해 내는 (producing)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언어의 의미 못지 않게 발음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과거의 영어음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분절음에 치우치고 있으며 그 지도 또한 분절음소나 변이음 분포를 훈련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부분 영어의 개별 분절음을 조음상으로 이해시키고 단어에 나타난 최소 대립 (minimal pair)을 여러번 반복, 훈련시키는 기계적 과정을 밟아 왔다. 그리하여 학습자들은 개별 분절음에 대한

1) 이에 대한 구체적 의사 소통 활동은 Littlewood (1981 : 20-21)를 참조할 것

발음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으나 그 분절음이 모여 형성된 문장에 대한 발성에는 강세나 억양 등에 익숙지 못해 영어답지 못한 소리의 흐름을 생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미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도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날 분절음 위주로 영어의 발음 교육을 실시해 온 입장은 전달되는 문장보다는 고립된 단어의 발음 지도에 비중을 두어왔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절음보다는 더 큰 단위인 초분절음의 발음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영어 음운론의 최근 흐름에서도 구조주의 음운론의 음소를 거쳐, 생성음운론의 형태소, 그리고 후기 생성 음운론의 강세, 성조, 음절 등의 초분절 자질이 중요한 논제로 채택되고 있음을 볼 때,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활용도 점차 기대되는 시점에 있다.

따라서 필자는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의사 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교실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발음 훈련이나 지도를 해야 바람직한지를 고찰해보겠다. 전달되는 문장 내부의 분절음이나 초분절음을 어떤 단계로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효율적인 발음교육이 되는지를 고려해 보겠다.

이러한 의도하에 본논문은 다음 6개의 장으로 전개할 것이다.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은 의사소통 능력과 발음지도를 연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과 그 단계를 발음교육과 관련시켜 설명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의사 소통 전단계의 발음 지도에 관한 것을 다루며, 제4장은 본격적인 의사 소통 단계의 발음지도에 대한 내용을 논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교실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도 활동이 가능한지를 제시하여 제6장에서 앞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겠다.

II. 의사 소통 능력과 발음 교육의 단계

본장의 근본 의도는 오늘날 외국어 교육이론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의사 소통 능력 (communicative competence)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의사 소통 활동의 특징을 간단히 언급한 후 이를 발음 부분과 관련시켜봄으로써 새로운 절차의 발음 교육을 위한 단계를 설정하려는 데 있다. 의사 소통 능력의 신장을 기하기 위해서는 영어 발음 교육의 모형을 어떻게 단계별로 설정해야 바람직한지를 살피기 위한 데 있다.

1. 의사 소통 능력의 개념

최근 영어 교육 이론의 중요한 논점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의사 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것인가 이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영미인과 만났을 때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여 서로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의사 소통 능력이란 바로 영어를 말하는 외국인과 만나는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영어를 표현함으로써 그 외국인과 효율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신이 뜻하는 바를 전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경우에도 상황에 적합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Allen(1975)은 의사 소통 능력에 대해 상황에 어울리는 적절한 문장을 발성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질문, 약속, 진술, 명령 등의 여러 행위를 할 때 거기에 알맞은 언어를 구사하여 의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수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²⁾.

2) J. P. B. Allen(1975), "Some Basic Concepts in Linguistics." In J. P. B. Allen & S. P. Corder, eds. 1975. *Papers in Applied Linguistics*,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p.39

또한 Finocchiaro & Brumfit(1983)도 의사 소통 능력을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적절히 언어체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the ability to use the language system appropriately in any circumstances)³⁾이라 정의하고 있다. 더우기 Hymes(1972)는 의사 소통 능력은 어떤 표현이 문법적으로 가능하며 생성되고 잉태되는지, 어떤 표현이 상황 맥락에 맞는지 또 실제 발화한 문장이 어떤 의미를 전하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⁴⁾

따라서 의사 소통 능력은 우선 언어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여 언어의 기능적 의미는 물론 사회, 문화적 의미를 알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바꿔 말해 변형 생성 문법의 기술 목표인 언어 능력(competence)은 물론 실제 주어진 환경에서 언어가 기능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언어 구조나 문법 등의 언어 내적인 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나 문화 내용 등 언어 외적인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의 "Why don't you close the door?"란 문장을 대할 때 의사 소통 능력이 있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우선 언어 능력상 위 문장의 구조는 의문문으로서 아무런 손색이 없는 적형적(well-formed)인 문장임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기능상으로 위 문장은 명령이나 권고, 불평의 뜻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문장과는 뜻은 같으나 표현이 다른 "Shut the door, will you?"는 친구에게 사용해야 적합한 것이나, 열차에 탄 낯선 사람에게는 "Excuse me, would you mind closing the door?"란 표현이 사회적으로 더 적합한 것임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⁵⁾

이런 점에서 Paulston(1974)은 의사 소통 능력을 언어 사용의 사회적 규칙(the

3) M. Finocchiaro & C. Brumfit(1983), *The Functional-Notional Approach: From Theory to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218

4) Hymes D. H.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C. J Brumfit & K. Johnson. eds. 1979. *The Communicative Approach to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19.

5) W. Littlewood. *op. cit.* p.2.

social rules of language use)이라 간주하고⁶⁾, 상황에 맞는 대화 표현인 사회에서 쓰는 일상의 말이나 관용 표현, 그리고 공손함의 표현을 구분해서 가르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위 문장에서 친구와 낯선 사람에게 서로 바꾸어 표현을 하였다면 사회적으로 공손함의 정도나 용인 가능성은 문제가 되기에 언어 능력은 있을망정 의사 소통 능력은 없다고 판단된다.

2. 의사 소통 활동의 단계

이같은 취지의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가?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며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힘을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로 전개되고 있다. 의사 소통 능력의 개념이 언어 내적인 면과 언어외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도 두 단계의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Littlewood(1981)는 이 두 단계의 활동을 의사 소통 전활동(pre-communicative activities)과 의사 소통 활동(communicative activities)으로 구분하고 있다⁷⁾ 전자는 언어구조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 그 언어구조를 약간의 기능적 의미와 관련시키는 활동으로써 Rivers(1972)의 기술 습득(skill-getting)의 단계에 해당된다. 언어의 형식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기계적 훈련을 포함한 순수한 구조적 활동과 거기에 나타나는 언어형식을 유사 의사소통의 활동(quasi-communicative activities)으로 연관시키는 부분적 활동이 제시된다.

반면에 후자는 의사소통 전단계에서 익힌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그것을 종합해서 언어 표현의 기능적 사회적 의미를 습득하도록하는 활동으로서 Rivers(1972)의 기술 사용(skill-using)의 단계에 해당된다. 구조상으로는 같은 문장이지만 기능상으로는 의미를 달리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용인 가능성에 비추어 상황에 맞는

6) Christ, B, Paulston(1974), "Linguistic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TESOL Quarterly **Ⅷ**, 4, p.347.

7) W. Littlewood, *op. cit.* p.20.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언어에 대한 부분적인 기술보다 문장이 사용되는 상황을 포함한 전체적인 활동이 중요시되는 단계이다.

이 관계를 Littlewood(1981)를 따라 도표로 알기 쉽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⁸⁾

- (1) pre-communicative activities : structural activities
quasi-communicative activities
- communicative activities : functional communicative activities
social interaction

요컨대, 의사소통 전활동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언어형식을 철저히 훈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의사소통활동은 앞 단계의 지식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상황에 맞게 그 의미를 기능적이며 사회적으로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하느냐에 강조점이 있다.

3. 발음 교육의 단계

앞에서 의사 소통 능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두 단계의 활동은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히 고찰하였다. 지적한 것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언어를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언어 내적인 능력을 키우는 단계와 언어 외적인 능력을 키우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언어 내적인 지식은 다분히 언어 형식에 대한 이해력을 말하며 언어 외적인 지식은 언어 내용에 대한 이해력이라 보면 된다.

그렇다면 이 두 단계의 활동을 발음 부분과 관련시켜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의사 소통 전단계의 활동이 주로 언어 구조나 형식을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면 발음 부분에서는 개별 분절음에 대한 지도활동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문장을 발성하여 상대방에게 적절한 의사를 전하려면 우선 가장 기본이 되

8) *Ibid.* p.86.

는 단어의 음에 대한 발성과 훈련, 그리고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개별 분절음에 대한 발음 교육은 비단 단어의 개별 음운으로 그 최소 대립을 포함하여 문장 속의 최소 대립을 훈련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적어도 본격적인 의사 소통 활동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유사 의사 소통의 활동을 하려면 단어를 넣어 문장 속에 나타난 최소 대립의 지도를 통해 발음 교육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의사 소통 활동의 발음교육은 초분절음을 발생하고 지도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의사 소통 활동이 주로 전달되는 의미에 중점을 두는 활동이기 때문에 뜻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분절음보다 오히려 초분절음에 대한 훈련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이는 분절음의 발음은 잘못되어도 전체적인 문장의 리듬이나 억양이 맞으면 문장의 뜻은 그런대로 잘 전달되는데서도 뒷받침된다. 더 우기 이러한 초분절음이 학습자의 경험 내용이 담긴 문장이나 대화 속에서 지도된다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가 의사 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설정하는 발음 교육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 | | |
|------------------------------------|------------|
| (2) 의사 소통 전단계 활동 : 분절음 단독 발성 지도 활동 | 자음 조음법 |
| | 모음 조음법 |
| | 단어 속에서의 지도 |
| | 문장 속에서의 지도 |
| 의사 소통 단계 활동 : 초분절음의 인지 활동 | 초분절 단위의 의미 |
| | 초분절 요소의 의미 |
| | 강세의 지도 |
| | 리듬의 지도 |
| | 연접의 지도 |
| | 억양의 지도 |

의사 소통 전단계에서 실시할 발음 지도는 주로 분절음의 발성과 훈련을 가리킨다. 자음과 모음 단독으로 발음하는 경우와 단어와 문장을 통한 약간의 상황 부여

속에서 분절음을 지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사 소통 활동 단계는 전단계의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초분절음의 지도에 초점을 둬으로써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초분절 단위와 요소를 이해시키고 강세와 리듬, 연접과 억양 등을 가르침으로써 발음면에서 효과적으로 의사가 전달되도록 하는 활동이다.



Ⅲ. 의사 소통 전 단계의 발음 지도

본장의 목적은 의사 소통 전 단계에서 발음 지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발음 지도와 관련한 의사 소통 전 단계의 활동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주로 분절음을 학습자들에게 가르치는 활동이므로 여기서는 자음과 모음을 어떤 식으로 지도해야 의사 소통의 좋은 기반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1. 분절음 단독 발성 지도 활동

우선 분절음의 발음을 지도하는 순서는 자음과 모음을 단독으로 가르치는 일부부터 시작하면 된다. 자음과 모음의 특징을 비롯해 그 분류 기준과 변이음(allophones)에 대한 인식을 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변이음은 그 용어가 학생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지므로 환경이 다를 때마다 발음상 다르게 나타나는 소리라고 말하면 된다.

각각의 음이 어디에서 발음되고 또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교사가 직접 발음을 하거나 녹음된 모국어 화자의 목소리를 여러번 들려주어 학습자가 모방하도록 한다. 물론 이 경우 조음점과 조음 방법의 모음을 그림으로 그린 도표를 보여주며 모방하도록 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자음 /p/, /t/, /k/를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은지를 보기로 하자. 우선 그 음들은 발음할 때 성대가 진동하지 않는 무성음으로 모두 다 입안에서 공기가 폐쇄됨으로써 조음된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그 음들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기식음을 동반하는 [p^h], [t^h], [k^h]로 발음되고, /s/다음에서는 기식음이 거의 없는 [p'], [t'], [k']로 발음되며, 단어의 끝에 위치할 때는 공기를 방출시키지 않고 [p[̚]], [t[̚]], [k[̚]]로 발음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필요하다면 기식음은 촛불을 바로 앞에 두고 그것을 '푸' 불었을 때 나는 소리라고 간단히 언급한다. 그 후 세 음을 발음할 때의 입술과 혀의 모습을 그린 도표를 제시하고 pit, table, car, spin, student, sky, top, cot, bak 등의 단어들을 교사가 직접 시범 발음한

후 정확히 모방하도록 하면 된다.

모음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과정을 따르면 된다. 가령 영어 모음 /i/, /e/, /æ/를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면 되는지를 설명해 보자. 그 음들은 모두 다 발음할 때 혀의 높이를 다르게 나타내지만 혀의 위치상 앞부분에서 나는 소리임을 인식시킨다. 물론 혀의 높이면에서 /i/가 제일 높고 /e/가 다음이며 /æ/가 가장 낮은 음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나서 교사는 beat, meat, day, lay, had, hat 등을 발음하며 학습자들에게 모방하도록 한다.

이 때 주의할 것은 /i/와 /e/는 음성학적으로 이중 모음으로서 그것을 발음할 때는 단모음 /I/나 /e/보다는 더 길고 더 근육이 긴장을 하여 발음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보다 더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중등 영어 교육 현장에서는 /i/와 /e/가 마치 bit나 bet의 모음과 같은 발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나 /i/와 /e/는 사실 /iy/와 /ey/로서 긴장 모음을 뜻하는 것임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i/와 /e/는 단모음 또는 이완 모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분절음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학습 대상어인 영어와 모국어인 한국어의 음운상의 차이를 이해하여 그 내용이 필요시 교육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는 점이다. 양 언어의 어떤 분절음 체계 때문에 학습상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⁹⁾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자음 /p/, /t/, /k/와 우리말의 자음 /p/, /t/, /k/는 그 성격이 전혀 달라 문제가 된다. 우리말에서는 영어의 /p/, /t/, /k/가 /ㅍ/, /ㅌ/, /ㄱ/에 해당하는데 그 세 음에 대한 영어의 다른 자음들인 [p^h], [t^h], [k^h]는 오히려 한국어에서는 뜻을 구분해 주는 자음으로 존재하여 각각 /ㅍ/, /ㅌ/, /ㄱ/으로 표시하고 있다. 바꿔 말해 한국어에서는 영어의 /p/의 변이음들인 [p^h], [t^h], [k^h]가 엄연히 별개의 음소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한 앞서 제시한 영어의 모음으로 돌아가면 영어의 /i/는 우리말의 /이/보다 좀 더 긴장모음이지만 영어의 /e/는 우리말의 /에/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서 조음되고

9) 영어 교육에 있어서 이 관점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대조 분석(contrastive analysis) 방법론에 잘 나타나 있다.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영어의 /æ/는 한국어의 /애/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서 발음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절차를 따라 분절음을 가르친 후 교사는 자신의 지도가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학습자들에게 확인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 훈련은 가르친 음이 들어 있는 단어를 교사가 직접 발음해 주고 그것을 학습자들이 식별하도록 하는 이른바 음의 확인 연습 (identification of the sound)에 해당한다. 이 훈련은 Paulston Bruder(1976)에서도 분절음의 발음을 지도하는 하나의 기법으로 제시되고 있다.¹⁰⁾ 이 방법은 교사가 칠판에 배운 단어들 중 하나를 번호를 붙여 제시하고 나머지 배운 음들은 쓰지 않고 교사가 발음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그 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쓰면서 확인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제시한 meat와 day 및 hat를 어떻게 확인하는가를 보자. 우선 교사가 칠판에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붙여 단어를 쓴다.

(3) 칠판 :	1	2	3
	meat	day	had

그리고 나서 교사는 beat, day, had 등의 단어를 발음하고 학습자들에게 들은 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쓰도록 하면 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4) T : beat	S : 1
had	3
day	2

2. 상황 부여 분절음 지도 활동

분절음을 단독으로 지도하는 과정을 마치고 교사가 해야 할 활동은 단어와 어구

10) Christina Bratt Paulston & M.N.Bruder(1976).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 Techniques and Procedures*. Cambridge : Winthrop Publish Co. p.98.

그리고 문장 속에서 분절음을 연습시키는 일이다. 이때 교사가 도입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최소 대립에 의한 훈련 기법 (minimal pair drills)이다. 단어와 어구에서 서로 대립을 이루는 단어의 발음을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상황상 단서 (contextual clues)가 있는 문장을 훈련시키며¹¹⁾ 마지막으로 최소 대립을 이루는 문장을 가르치는 순서로 활동을 시키는 과정이다. 문장 속에서 최소 대립 훈련을 하는 의도는 의사소통 전단계와 의사소통 단계의 중간 과정으로서 적어도 발음 부분에서 유사 의사소통 능력 (quasi-communicative competence)을 키워보려고 함에 있다.

1) 단어 속에서의 지도

이 활동은 두 단어의 내부에서 각각 어느 한 음만이 다르고 나머지 환경은 동일한 경우 차이가 나는 두 음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기법이다. 두 단어의 환경은 꼭 같으나 어느 하나의 음만 대립을 이루는 경우의 지도를 의미한다.

여기서도 자음과 모음이 대립을 이루는 경우가 다 포함되어 있다. 먼저 자음이 최소 대립을 이루는 것은 환경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자음의 최소 대립의 예

- a. 어두 대립 pig/big, pan/fan, they/day, thin/sin, thank/sank
- b. 어중 대립 rapid/rabid, rowing/rooing, clothing/closing, seating/seading
- c. 어말 대립 bath/bat, rip/rib, cat/cap, ban/bang, safe/save

이번에는 모음이 최소 대립을 이루는 단어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6) 모음의 최소 대립의 예

- a. 어두 대립 eat/it, an/on, oil/isle, end/and
- b. 어중 대립 leave/live, bit/bet, bit/beat, pin/pen
- c. 어말 대립 jow/joy, so/saw, cow/coy, clow/cloy, saw/soy

11) 이 부분에 대해서는 Don.L.F.Nilson & A.P.Nilson(1971)을 참조할 것

위에 적은 단어들은 반복 연습시키면서 구별하도록 지도하고 나중에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그 음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이 지도 과정에는 이계순(1989)이 제시하는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¹²⁾ 첫째는 세 쌍의 낱말 중에서 같은 소리를 가진 낱말을 골라 위에 적힌 번호를 말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위에서 예를 든 최소 대립이 되는 단어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7)	1	2	3	
	day	they	day	(1-3)
	thin	thin	sin	(1-2)
	bath	bat	bat	(2-3)

둘째는 두 단어의 발음을 번호를 붙여 듣게 하고 나중에 교사가 발음해 주면 그것과 같은 발음이 어느 것인지를 번호를 붙여 말하게 하는 방법이다.

(8)	1	2	
	leave	live	
	T : bit	S : 2	
	beat	1	
	eat	1	
	it	2	

이 과정이 끝난 후 교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더 추가하여 지도할 수 있다.¹³⁾

- (9) T : He's going to leave.
 S : Number 1
 T : What's number I then?

12) 이계순(1989), 「영어 교수법」, 서울, 한국방송대학출판부, p.190.

13) C.B. Paulston & M.N.Bruder(1976). *op. cit.* p.101.

S : He's going to live.

2) 어구 속에서의 지도

이 지도는 두 개의 단어가 연결되는 어구에 있어서 단 하나의 음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 모든 것이 같은 경우의 지도를 말한다. 다음의 어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 (10) my sheep—my ship
the play—the pray
hall floor—whole floor

위 어구를 지도할 때에도 단어들의 최소 대립의 발음을 지도할 때와 비슷한 과정으로 지도하면 된다. 다만 어구 속에서 최소 대립의 지도는 다음에 제시한 문장 속에서의 최소 대립의 지도를 연결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3) 상황 단서가 있는 문장 속에서의 지도

이 지도는 한 문장 속에서 최소 대립이 되는 단어들이 동시에 오도록 하여 그 발음을 지도하는 활동이다. 의사 전달의 과정이 문장의 의미를 전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 할 때 이 방법은 문장의 의미를 전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지도 활동에서 이용해야 할 문장은 다음과 같다.

- (11) a. The pig is big.
b. That wine is mine.
c. She sang a song.
d. The rod is red.
e. Please sit in this seat.

단어 속에서 대립되는 음을 지도하는 절차를 기반으로 여기서는 문장을 통해 위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을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본다. 예를 들어 첫째 문장의 발

음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먼저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문장을 여러 번 직접 발음하여 들려준 후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밟도록 한다.

(12) T : Repeat after me. The pig is big.

S : The pig is big.

T : Is the pig big ?

S : Yes, the pig is big.

T : What is big ?

S : The pig.

T : How is the pig ?

S : The pig is big.

4) 전체 문장 속에서의 지도

이 활동은 단어의 최소 대립을 문장 속에 나오도록 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단어의 최소 대립 지도를 통해 어느 정도 발음에 익숙한 학습자들에게 두 문장을 들려주고 단어의 경우에서처럼 같은 발음과 다른 발음을 구별하게 하거나 같은 발음을 가진 문장의 번호를 말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교사로서는 약간만 응용하면 대화를 만들어 발음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문장의 의미까지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앞에서 제시한 다른 어떤 활동보다 유의적인 발음 지도의 활동이 될 수 있다. 이제 이 지도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는 최소 대립을 이루는 문장을 학습자들에게 발음하여 따라하도록 한다.

(13) a. The man beat the dog.

b. The man bit the dog.

(14) a. Did he leave ?

b. Did he live ?

단어상의 최소 대립이 결국은 문장 속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최소 대립을 이루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시키고 그 후 전체 문장을 들려주며 모방하도록 한다.

어느 정도 반복이 되었으면 교사는 다시 문장을 들려주고 두 개의 문장의 발음이 같은지 또는 다른지를 확인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발음이 같은지 또는 다른지의 차이를 구별하는 연습 (same-difference exercise)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15) T : The man beat the dog. The man bit the dog.

S : Different.

T : Did he leave ? Did he leave ?

S : Same.

이러한 기법은 약간만 응용하면 현장에서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는 좋은 지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사가 최소 대립이 되는 단어를 훈련시키고 난 후 그 문장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학생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식으로 발음 지도를 하면 발음의 정확한 지도뿐만 아니라 문장에 대한 이해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가령 교사가 다음과 같은 최소 대립이 되는 문장을 가르쳤다고 하자.

(16) a. This pen leaks.

b. This pan leaks.

이를 기반으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가르칠 수 있다.

(17) T : This pen leaks. Does this pen leak ?

S : Yes, that pen leaks.

T : Then, we can't write with the pen. By the way, what about this pan?

S : That pan leaks, too.

T : Then, we can't write with the pan.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발음 지도를 할 수 있는 문장과 지도 절차는 아래와 같다.

(18) This pool is for swimming.

This spool is for sewing.

최소 대립이 되는 위 문장을 여러 번 연습하고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대답을 유도한다.

(19) T : What's this pool for ?

S : For swimming.

T : What's this spool for ?

S : For sewing.

특히 최소 대립이 되는 문장의 발음 훈련은 학생들로 하여금 상대방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인지(true) 또는 거짓인지(false)를 판단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익한 훈련도 될 수 있다. Dacanay(1963)이 제안하고 Paulston & Bruder(1976)이 인용하는¹⁴⁾ 이 방법을 우리가 앞서 제시한 문장에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다.

(20) T : If a man bit the dog, it would be news.

S : True.

T : If a man beat the dog, it would be news.

S : False.

14) C.B. Paulston & M.N.Bruder(1976), *op. cit.* p.99.

T : This pool is for sewing.

S : False.

T : Students often write a pen.

S : True.



IV. 의사 소통 단계의 발음지도

본장에서는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발음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발음을 통해 자신이 뜻하는 바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분절음보다는 초분절음을 정확히 발성하고 이해시키는 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여기서는 초분절음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가르치면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1. 초분절음의 인지 활동

의사 소통을 원만히 하기 위한 단계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초분절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시키는 일이다. 과거 영어 발음 교육은 자음과 모음의 분절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의사 소통 활동이 전달되는 의미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발음상 문장의 의미를 많이 좌우하는 초분절음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는 초분절 단위와 초분절 요소의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초분절 단위는 음절 (syllable), 음보 (foot), 단어 (phonological word), 구 (phonological phrase), 절 (clause) 따위를 말하며, 초분절 요소란 성조 (tone), 강세 (stress) 및 리듬 (rhythm), 음도 (pitch), 억양 (intonation)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 초분절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절이란 단위이다. 음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초분절 체계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단어, 구, 절 등은 모든 초분절 단위가 음절로 구성되어 있음은 물론이요, 성조, 강세, 리듬, 억양 등 초분절 요소도 모두 이 음절을 단위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분절 단위중에서 발음 교육시 맨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음절에 대한 정보이다. 영어의 음절은 모음인 음절핵 (nucleus)을 중심으로 음절 전부 (onset)에 자음이 최대 세 개까지 허용되며 음절 후보 (coda)에 자음이 최대 네 개까지 허용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¹⁵⁾ 그러므로 영어의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이 음절 구조에 비추어 몇 음절인가를 알게 하여야 한다. 음절 구분의 방법은 정국(1988)이 지적하는 대로 맨 가운데 V를 찾고 다음으로 앞의 자음을 최대 3까지 찾으며 마지막으로 뒤의 자음을 찾으면 된다.

이와 같은 음절에 대한 정보를 인지시키는 것이 분절음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영어 단어 'strike'은 1음절의 단어임에도 우리의 학습자들은 [sitiraiki]식으로 발음 지도함으로써 4음절로 인식하고 있다. 자음과 자음, 그리고 단어 끝에 불필요한 모음인 '으'를 삽입함으로써 영어의 음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아무리 분절음을 잘 발음한다고 해도 그것은 제대로 된 발음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소용없는 발음 교육이 되고 말것이다. 'book'을 '부크', 'flowers'를 '후라우어즈' 등으로 발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음절에 대한 이해를 시켜 교육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 음절을 제대로 학습자가 인식한다면 분절음들이 서투르다 해도 제대로 발음되어 문장상 올바른 리듬의 기초도 세울 수 있어서 의사 전달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초분절음 단위 중에서는 음보에 대한 인식도 영어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것이다. 알다시피 음보는 음절보다는 크고, 음운보다는 작은 단위로서 음절 다음으로 중요한 운율 요소를 이룬다. 음보는 강세 음절과 비강세 음절이 결합으로 형성되며 이를 기준으로 문장 발음시 동시간격성(isochronism)이 유지되는 경계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다.

한편, 초분절 요소에서는 영어의 경우 강세와 리듬, 그리고 음도와 억양이 의사소통을 위한 발음 교육시 중요한 내용이 된다. 강세는 단어 강세와 구/문장 강세로 나누어 인지시켜야 하며 문장 강세를 기초로 문장의 리듬이 형성되므로 강세가 발음시 의미 전달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어디까지나 강세는 음절을 기반으로 생각해야 한다. 즉 강세란 단어의 한 음절에 주어지는 것이지 모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다시 말해 강세 음절, 비강세 음절이란 것이지 강세 모음과 비강세 모음이 아니란 것이다. 이것은 리듬에 있어서도 억양에 있어서도 마

15) 김종훈(1990), 「음절음운론」, 서울 : 한신문화사, p.151.

찬가지이다. 상승조(rising)나 하강조(falling)나 하는 것도 하나의 음절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단어에서 문장에 이르기까지 음절에서 시작하여 음보와 강세, 그리고 문장 리듬의 문장 강세를 통해 초분절음의 체계를 지도하는 것이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크게 기여 한다고 본다. 이러한 초분절체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영어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동기까지도 불러넣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I took a walk after breakfast."란 문장을 가르칠 때 분절음에 매달리기보다는 강세 음절을 기반으로 약강, 약강, 약강, 약강의 리듬 박자를 맞추며 발음할 때 학생들은 문장의 의미 파악은 물론 발음면에서 특히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다.

2. 초분절음의 지도 활동

그러면 영어의 초분절음을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지도하면 되는가?

여기서는 영어의 강세와 리듬, 연접과 억양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은지를 고려해보겠다.

1) 강세의 지도 활동

일반적으로 강세란 어떤 음절을 주위의 다른 음절보다 두드러지게 발음할 때 그 음절에 가려지는 호기의 세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강세는 단어와 구, 문장속에서 한 음절을 주변의 다른 음절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여 발음할 때 가해지는 소리의 강도를 뜻한다. 모음이 아니라 음절에 강세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강세를 받는 부분은 강세음절(stressed syllable), 받지 않는 부분을 비강세음절(unstressed syllable)이라 한다.

영어의 경우 강세의 등급은 학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제일 강하게 발음되는 제1강세(primary stress), 그 다음에 계속 제2강세(secondary stress), 제3강세(tertiary stress)와 가장 약하게 발음되는 'weak stress'로 구분된다. 그 구별 부호는 각각 / ˈ /, / ɪ /, / ˌ /, / ˘ /로 표시한다.

강세는 그것이 단어에 붙는지 구에 붙는지 또는 문장에 붙는지에 따라 단어강세 (word stress), 구강세 (phrase stress), 문장강세 (sentence stress)로 분류되는데 단어 강세는 한 음절 또는 그이상으로 된 단어를 발음할 때 사용하여, 구강세는 구에 나타나는 단어를 발음할 때 사용하고, 문장강세는 한 문장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단어를 발음할 때 사용된다. 또한 강세의 기능이나 성격에 따라 평가강세 (value stress), 리듬강세 (rhythmic stress), 강조강세 (emphatic stress), 통합강세 (unity stress)로 나뉘고 있다. Jespersen (1909)이 말하는 평가 강세는 단어와 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보다 더 강하게 발음되는 것이며, 리듬강세는 전체의 리듬을 맞추기 위하여 강한 음절이나 약한 음절이 교대하도록 한 경우이고, 강조강세는 특별히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곳에 강세를 두는 것이며, 통합강세는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단어가 되거나 혹은 하나 이상의 단어가 모여 복합어나 구를 이룰 때, 즉 독립한 요소를 하나로 할 때 주어지는 강세를 가리킨다.

그런데, 영어의 경우 강세는 그 위치나 종류가 일정한 것이 아니고 단어나 문장을 발음할 때 여러 가지로 달라져서 뜻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낱말이 독립해서 발음될 때 지녔던 단어 이상의 강세는 문장 속에서도 반드시 그 강세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이 여러 가지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더우기 강세는 리듬뿐만 아니라 억양과도 많은 관련이 있어서 발음상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려 할 때 반드시 습득해야 할 요소가 되고 있다. 강세가 기반이 되는 리듬과 억양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강세를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지도하면 좋은가?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강세지도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낱말 자체에 대한 강세보다 문맥이 주어진 가운데서 강세를 습득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 하면 낱말 하나가 일반적으로 문장을 형성하는 것은 아닐뿐 아니라, 강세도 단어보다 큰 어구나 문장 속에서는 전체적인 리듬이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단어의 개별강세는 어휘를 습득시킬 때 동시에 가르치면 되므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단어의 강세를 지도할 때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을 하려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단어의 의미를 알게 하

고 그에 따라 발음을 하여 뜻이 전달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철자가 같은 명사의 경우 강세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문맥 속에서 지도해야 효과적이 된다.

- a. I recórded it in my récord.
- b. The usher will condúct you to your seat if you display good cónduct.
- c. He was subyécted to severe punishment because of his negligénce of the elective súbject.
- d. The U. S. expórts cars to many countries but our country bans the éxport of cars to America.
- e. The workers prótésted against working longer hours but the boss put them down under prótest.

이와 비슷한 취지로 구강세를 지도하는 경우에도 복합 명사의 강세와 단순히 형용사와 명사가 결합될 때 붙는 강세를 서로 비교하여 문맥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복합 명사의 강세¹⁶⁾를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학생들에게 영어로 들려준다.

Situation : It's almost Christmas. People are thinking about what presents they're going to put under their Christmas trees.

이어 교사는 그림을 보여주며 Christmas trees의 발음을 따라하도록 말하고 학습자는 그것을 모방한다.

T : Repeat. Chrístmas trees.

S : Chrístmas trees.

16) 이부분은 C. B. Paulstarn & M. N. Bruder (1976 : 111-113)을 참조.

다음에 교사는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다음과 같은 문장을 들려준다.

This is a tree for Christmas.

학생들은 이에 대해 "A Christmas tree." 라고 대답한다. 교사는 Christmas tree 가 그려진 그림을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What is this?

그러면 다시 학생들은 강세에 주목하면서 (It's) a Christmas tree. 라고 대답하면 된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위 상황에 나온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선물을 언급하여 강세 지도에 이용할 수 있다. 즉, a handbag, a cold cream, a salad bowl 등의 선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도를 할 수 있다. 우선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a handbag, a coffee pot, a salad bowl을 명확히 발음해 주고 따라하도록 한다. 이어서 Christmas tree의 강세를 가르치는 과정과 꼭 같이 하여 가르치면 된다.



(21) T : This is a bag for carrying in the hand.

S : A handbag.

T : What's this?

S : (It's) A handbag.

그 후 최소 대립이 되는 강세를 대비시켜 연습하도록 하면 더욱 유의적인 지도가 될 수 있다. 이른바 '최소 강세 대립문 (minimal-stress contrast)'을 통해 지도하는 것이다. 위 단어중 cold cream의 강세 지도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2) A : Where can I buy a cold cream?

B : At the drugstore.

A : Where can I buy a cold créam?

B : At the dairy.

필자가 이러한 식으로 강세 지도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강세를 문장의 의미와 더불어 지도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올바른 강세를 배양해야 문장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므로 이에 대한 훈련을 학생의 주변 생활 속에서 습득해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편 문장 속의 강세는 단어 속의 강세에 비해 덜 고정되어 있어서 문맥에 따라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는 의사가 없이 보통 속도로 말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일반적임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첫째, 내용어(content words)는 강세를 주고 기능어(function words)는 약세를 받도록 지도를 한다. 내용어는 기능어보다 더 크게, 더 높은 음도로 발음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용어인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는 강세를 받으며 기능어인 조동사, 전치사, 접속사, 인칭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약하게 발음된다. 이 원칙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다음과 같은 문장은 아래 표시한 강세를 받는다.



- (23) a. You may be right.
b. Spríng is cóming.
c. My fáther is awáy from hóme.

첫 문장에서 형용사 right는 내용어이므로 강세를 받지만 You, may, be는 각각 대명사, 조동사, be동사이므로 약세를 받는다. 둘째 문장에서 명사인 spring과 동사인 coming은 강세를 받지만 is는 약세를 받는다. 마지막 문장에서 father와 home은 명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away는 부사이기 때문에 강세를 받지만 my, is, from은 모두 기능어이기 때문에 약세를 받는다. 물론 기능어라도 be동사나 have동사가

문장 끝에 올 경우나 특별히 반대, 부인, 반박의 의도로 발성할 때는 강세를 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5) a. Are you a *d*óctor?

b. Yes, I *á*m.

(25) a. You *m*úst study.

b. I *á*m studying.

둘째, 화자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강세가 변화함을 인지시킨다. 다음의 좋은 예이다.

(26) a. I heard Sue *t*áking.

b. I heard *S*úe talking.

c. I *h*éard Sue talking.

d. *I* heard Sue talking.

첫 문장은 노래소리가 아니고 말소리를 들었다는 의미이며, 둘째 문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Sue가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는 뜻이며, 셋째 문장은 Sue가 이야기 하는 것을 보지 않고 들었다는 것이며, 넷째 문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었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다양한 의미의 차이는 결국 강세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 생기고 있다. 따라서 의사 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지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셋째, 두 낱말이 대비될 경우는 강세를 받는다고 가르친다. 이른바 대조강세(contrastive stress)가 이를 뒷받침한다.

(27) a. Did you take the *n*éw car or the *ó*ld one?

b. I want the *l*ítte box, not the *b*íg one.

c. The *n*éw team is as good as the *ó*ld one.

네째, 대화를 시작하는 문장에서 동사는 그 다음에 대명사가 목적어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보통 강세를 받지 않음을 가르친다.¹⁷⁾ 예를 들면 다음 두 문장이 이 현상을 보여준다.

- (28) a. Did they finish it?
b. We've rented an apartment.

즉, 첫 문장에서는 동사가 그 다음에 대명사로서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강세를 받지만, 두번째 문장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강세를 받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문장의 끝을 일반적으로 강하게 읽는 억양의 영향과 기능어인 경우 강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이같은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려면 교과서에 나오는 대화를 통해 강세를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세를 개별 단어 속에서 연습시키는 것보다, 문맥이 주어진 가운데 훈련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교재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대화의 강세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은가.

- (29) Min-su : Well, what do you think about the story?
Yun-chi : I can't believe it. What about you?
Min-su : Believe it or not, it must be a true story.
 We have actual persons, actual dates, and actual dates,
 and everything.
Yun-chi : I kow. But still Samson's dream was so strange.
Min-su : Anything can happen in a dream, you know.
Yun-ch : Right. But the problem is he could write the news before it
 happened.

17) C. B Paulston & M. N Bruder(1976), op cit. p.122

Min-su : I know what you mean. But still I believe it.

우선 교사는 위 대화를 녹음한 모국어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문장을 들려준다. 그리고 나서 교사는 학생들이 강세를 습득하는 사실에 유의하여 올바른 강세 원칙을 지키며 시범 발음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교사가 문장 중 어디에 강세를 두는지 시각과 청각에 주의를 기울이며 따라서 발음한다.

어느 정도 연습한 후 교사는 자신의 발음을 다시 들려주고 단어의 어느 음절에 강세가 주어지는지를 구두 표현이나 또는 시험지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2) 리듬의 지도 활동

이 활동은 영어에 고유한 리듬을 읽힘으로써 영어의 문장을 발성할 때 영어다운 발음을 하여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영어의 문장을 들을 때에도 어디에 강한 요소와 약한 요소가 오는지를 이해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영어는 강한 요소와 약한 요소가 연이어서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 서로 교대하여 번갈아 나타남으로써 자연스러운 리듬을 이루는 언어이다.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항상 강과 약이 조화를 이루며 발생되는데 특징이 있다. 영어는 극도로 리듬을 가진 언어(English is an extremely rhythmic language.)이다. 또는 영어는 약강의 조화를 이루는 언어(English is an iambic language.)이다란 표현은 모두 영어의 특징적인 리듬을 잘 언급하는 말이다.

그런데 영어의 리듬은 앞에서 논한 강세가 기반이 되어 형성하고 있다. 문장 속에서 강세를 받는 음절과 그렇지 않는 음절이 교대로 일어나면서 리듬을 이루고 있다. 영어가 한국어와는 달리 강세가 중심이 되는 강세박자언어(stress-timed language)란 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 현장에서 영어의 리듬에 대해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은 첫째, 강세 음절과 약세 음절의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둘째, 하나의 강세 음절과 또다른 강세 음절 사이의 발음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강세 음절은 강하고 명확하게 발음하며 약세 음절은 약

하고 빨리 발음하도록 지도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두 개의 강세 음절 사이에 많은 약세 음절이 오면 약하게 빨리 발음하고 약세 음절의 수가 적을 때에는 천천히 발음하도록 지도한다.

예를 들어 My friend is a very good student란 문장을 발음할 때는 My friend is a student란 문장을 발음할 때처럼 두 강세음절 사이에 오는 여러 약세 음절을 첫문장은 약간 빨리, 둘째 문장은 약간 느리게 조정하여 발음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어의 경우는 음절이 중심이 되는 음절박자언어(syllable timed language)이므로 각 음절이 동일한 비중으로 발음되지만, 영어는 위에서처럼 강세 음절을 중심으로, 다음 강세 음절 사이에 오는 여러 약세 음절을 빨리 또는 느리게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음절 중심의 리듬에 익숙한 학습자들에게는 영어의 강약 중심의 리듬을 인식시키면서 문장 속에서 강한 강세를 받는 말과 약한 강세를 받는 말에 유의하도록 연습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발음을 터득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하나의 강세 음절과 다음의 강세 음절 사이에 약세 음절이 올 때 그 발음시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생각해보자. 영어는 강세 받는 음절이 규칙적인 시간간격으로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이를 등시 간격성(isochronism)이라 하는데 영어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자연히 두 강세 음절 사이의 간격은 같게 하고 비강세 음절의 모음은 축약함으로써 발음 시간을 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영어 리듬 지도시 자주 등장하는 Fries (1945)의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자. ¹⁸⁾

- (30) a. The dóctor's a súrgeon.
- b. The dóctor's a good súrgeon.
- c. The dóctor's a very good súrgeon.
- d. The dóctor's not a very good súrgeon.

18) Charles C. Fries (1945), *Teaching and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 23

위 문장들은 비록 음절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강세 받는 음절은 두 개로서 동일하다. 즉, doctor와 surgeon 첫 음절에만 강세가 주어지고 있다. 이 경우 강세를 받는 음절간의 실제 발음 시간은 그 사이 많이 끼어들고 있는 음절의 수에 있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거의 똑같다.¹⁹⁾

그러나 음절을 중시하는 한국어의 리듬 방식으로 위 문장들을 발음하면 a에서 부터 b의 순서대로 점점 발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며, 강세 음절이든 비강세 음절이든 관계없이 모든 음절은 다 똑같이 발음해야 한다. 바로 이같은 사실이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문장의 발화시간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강세 음절 사이에 오는 약음절을 약화시켜 발음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첫째 문장에서는 강세 음절사이의 약음절이 2개이며, 둘째 문장은 3개이며, 셋째 문장은 4개이며, 넷째 문장은 6개이므로 각 문장이 발화 시간이 같도록 하기 위해 넷째 문장의 경우 강세 받지 않는 음절을 약화시키거나 축약시켜 빨리 발음하고, 첫 문장은 약간 느리게 발음함으로써 리듬을 맞추도록 해야한다. 사실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영어 표현을 대할 때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비강세 음절을 약화시켜 빨리 발음하는 것을 알지못하는 데서 나오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One of the characteristics which makes spoken English very difficult for foreign students to comprehend is this tendency to reduce and run together all unstressed syllable.²⁰⁾

따라서 문장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강세를 받는 음절을 명료하게 발음하도록 하고, 강세를 받지 않는 음절은 약하게 발음하도록 함으로써 리듬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결과 비강세 음절의 모음은 흔히 중모음 (mid-vowel), 또는 애매모음 (schwa)

19) Ibid. pp.23-24.

20) C. B. Paulston & M. N. Burder (1976), *op. cit.* p. 92

으로 발음되어 원래의 제음가를 갖지 못하게 된다. 비강세 음절은 /a/, /e/, /i/, /o/, /u/의 강세 모음 발음이 유지되지 못하고 모두 /ə/로 약화되어 발음함으로써 의사 전달시 리듬의 약요소를 형성하는데 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around, agree, ago, about의 첫 음인 /a/는 모두 애매모음 /ə/로 발음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리듬 지도와 관련하여 또 하나 거론할 내용은, 연음(linking)에 관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에는 단어들은 서로 그룹화되어 연속된 음으로 발음되는데 화자들은 청자들로 하여금 문장의 뜻을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단어들을 그룹별로 연음화시킨다.²¹⁾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연음을 제대로 이해시키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들의 의미는 발음시 서로 연결시켜 발음해야 올바르게 전달된다.

- (31) a. I won some money and a car.
 b. He's my favorite teacher.

특히, [] 로 표시된 부분은 한 단어의 끝과 다음 단어의 시작이 꼭 같은 음이 이어짐을 뜻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음을 한번만 발음하되 약간 길게 발음함으로써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3) 연접의 지도 활동

연접(juncture)이란, 영어의 단어와 단어사이를 발음할 때나, 구나 문장 끝에 약간의 휴지(break 또는 pause)를 두는 것을 말한다. 연접은 내개연접(open juncture)과 말미연접(terminal juncture)으로 나누어지는데 후자는 다음에 다룰 억양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본절에서는 내개연접만 간단히 다루기로 하겠다.

내개연접은 강세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인접한 두 단어 사이를 간격이 있게 발음하는데 관여하고 있다. 예를들어 a good dog, well done, not now등은 a gôod +

21) John Morley(1979), Improving Spoken English, Ann Arbor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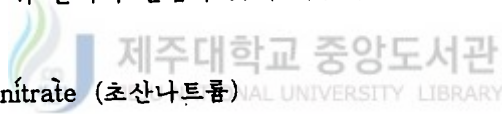
dóg, wéll + dóne, nôt + nów, 에서와 같이 연접 (+)을 돕으로써 약간의 간격을 유지하고 발음되고 있다.

특히, 내개연접이 의미 전달에 중요한 요소란 점은 그 위치가 어디냐 또는 그것이 붙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발화상에서 의미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잘 지도하지 않고서는 화자와 청가간의 의사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예를들어 다음 세개의 단어를 보자.

- (32) a. nítrate
- b. níght + rate
- c. Nýe + trait

위 세 가지 경우 제 1강세는 모두 첫음절에 주어지고 있으며 분절음의 연결로 같기 때문에 얼핏보기에 의미도 꼭같은 것으로 생각되나 사실 그러지 못한 것은 b와 c의 경우는 내개연접 /+/가 두 단어 사이에 오는 반면에 a는 내개연접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즉 위 단어의 연접과 뜻이 다음과 같이 표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33) a. nítrate (초산나트륨)
 - b. níght + räte (야간 요금)
 - c. Nýe + tráte (나이(사람이름)식 특성)

따라서, 이 차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개연접이 오는 경우는 그 앞에 오는 음을 약간 길게 발음하도록 하면 된다. (b)와 (c)는 각각 night과 Nye를 강하고 길게 하고, rate과 trait은 약하고 짧게 발음하므로써 리듬을 맞추도록 지도해야 한다. 반면에 c의 경우는 첫 음절은 강하지만 빨리 발음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적어도 교사는 어디에 내개연접이 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이다. 내개연접이 오는 경우 그 앞의 소리를 강하고 길게 발음시켜야 한다는 말은 그

연접이 어디에 오는지를 안 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가? 대체로 연속된 두 음절에 제 2강세와 제 1강세가 있을때 그 음사이 어딘가에는 반드시 /+/가 존재한다. 예컨데 *read+bóoks*와 *white+flówers*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모음이 연속되어 나오는 경우도 /+/가 주어진다. 예를들어 *an opera+of*나 *the idea+of*를 발음할때는 모음이 연결되는 중간에 휴지를 두어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된다.

4) 억양의 지도 활동

이 지도 활동은 영어를 영어답게 발음함으로써 원활한 의사 소통을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활동이다. 앞에서 다룬 초분절음도 영미인과 의사 소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억양(intonation)이야 말로 영어로 대화를 나눌 때 그 형태를 달리함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뜻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Did you see him?"이란 문장을 듣고 청자가 그냥 "No."라고 대답하는 경우와 "No?"라고 대답하는 경우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 첫번째의 No는 사전상의 의미를 그대로 지녀 단순한 부정의 대답을 뜻하지만 두번째의 No는 처음의 No와는 달리 "You mean you really didn't see him?"이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Yes'라는 것도 억양을 어떻게 하여 발음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Yes'의 억양 체계의 의미를 영어로 제시하면 "That is so.", "Of course, it is so.", "Yes, I understand that, please continue.", "Is it really so?", "It may be so."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억양에 대해서는 원래 가지고 있는 유형을 넘어 화자가 의도하는 소리의 높낮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 다른 의미도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의사 소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영어를 학습대상어로 하는 학습자들을 위해서 철저한 연습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억양을 구성하는 요소로부터 이해하고 기본적인 억양의 유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억양이라 하면 Trager & Smith(1951)도 언급하듯이 음도(pitch)와 말미연접(terminal

junction)을 합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화자가 영어의 문장을 발화할 때는 목소리를 조정해야 하는데 소리가 문장끝에서 올라가느냐 또는 내려가느냐, 아니면 지속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의도한 바가 달리 전달되는 것이다.

억양의 구성 요소가 되는 음도는 일반적으로 네 단계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가장높은소리(extra-high)와 높은소리(high), 보통소리(normal), 낮은소리(low)가 바로 그것이다. /4/로 표시하는 가장높은소리는 경악, 감정의 고양됨을 나타내고, /3/으로 표시하는 높은소리는 문장의 강조요소, /2/로 표시하는 보통소리는 문장을 시작할 때의 소리이고, /1/로 표시하는 낮은소리는 문장의 끝날 때의 소리를 나타낸다.²²⁾

억양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말미연접은 상승말미연접(rising terminal juncture), 하강말미연접(falling terminal juncture), 지속말미연접(sustained terminal juncture)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 표시는 학자에 따라 /*/, /#/ , /'/이나 /↑/, /↓/, /→/로 나타내고 있으나 후자의 표기법이 더 이해하기가 쉽다. 상승말미연접은 주로 Yes-No Question에, 하강말미연접은 서술문, 명령문, Wh-question의 문미에 오며 지속말미연접은 문두의 짧은 어구나 문장 중간에 있는 의미의 단위 끝에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이런 요소로 이루어지는 억양의 기본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제일 흔한 억양의 유형으로 "231↓"유형을 들 수 있다. 이 유형은 서술문, 명령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흔하게 나타나므로 학습자들에게 대화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세 문장에 대해 이 억양 유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34) a. I'm going d³ownt²own.
 b. C²ôme h¹ère.

22) 학자에 따라 가장높은소리를 /1/로 표시하고 낮은소리를 /4/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Pike(1963)이나 Gleason(1961)등이 이 표시를 사용한다.

c. Where is he going?

그러나 억양의 유형을 표시할 때 위에서처럼 숫자와 화살표를 이용하는 것은 약간 복잡해 보인다. 더구나 위 문장을 통해서도 시각적으로 어디에서 높은소리가 나는지를 빨리 알 수 없다. 어디까지나 학습자들이 영어 발음을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도 위 억양 표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 (35) a. I'm going downtown.
b. Come here.
c. Where is he going?

231↓ 유형 못지 않게 영어에 많이 나타나는 억양의 유형은 231↑ 유형이다. 이 유형은 yes-no의 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나, 서술문의 어순을 가진 의문문, 그리고 문장의 첫 구절인 문법 단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유형을 문장 속에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36) a. Are you going?
b. He is gone.
c. In short.

다음으로 문장의 끝나기 전에 휴지가 올 경우 나타나는 232→ 유형을 들 수 있다. 이 유형은 위를 약간 변형하여 문자의 첫 구나 절이 문법의 단위가 될 때나 서술문이지만 화자가 말한 것이 더 있다는 것을 암시할 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예가 이 유형을 보여준다.

- (37) a. Under the circumstances.
 b. Mary is a nice girl, (but—)

선택 의문문이나 열거문, 중문이나 복문에서는 233↑과 233↑의 혼합된 억양체계가 나타난다. 다음의 유형이 그 좋은 예이다.

- (38) a. Do you want coffee, or tea?
 b. He came, he saw, he conquered.
 c. If you want to eat now, I'll give you some cake.

이 밖에 앞에서 다룬 대조 강세도 억양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39) The new team is as good as old one.

이처럼 억양의 유형은 문장의 종류나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지며 사람의 태도나 감정 또는 상황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바뀌질 수 있으므로, 억양을 잘 알지 못하면 상대방의 심리를 잘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로서는 앞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억양 유형을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학습자부터 정확히 가르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억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억양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은가? 억양의 지도 방법을 편의상 3단계로 나누어 고찰해 보자. 첫 단계는 제시단계 (presentation)로서 영미인의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주어 한국어와의 차이를 느끼도록 하는 단계이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녹음테이프를 듣게한 후 들은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에 나타났던 억양대로 표시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억양의 표시는 앞에서 고찰한 화살표로 할 수 있으나, 손을 올리거나 내리는 동작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억양에 대해 좋은 연습을 할 수 있다.

두번째 단계는 문장을 듣고 억양을 구별하는 단계 (aural discrimination)로서, 학생들이 이전에 배운 유형과 다른 억양을 요하는 문법 유형을 가르치자마자 대립이 되는 문장 속에서 억양을 구별하도록 하는 과정이다.²³⁾

예를 들어 서술문에서 be동사를 배우고 yes-no로 대답하는 질문을 가르치는 경우 교사가 영어 문장을 발음하면 학생들은 그 억양에 따라 진술의 내용인지 의문의 내용인지를 말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예로써 교사가 다음의 두 문장을 억양에 맞게 발음하면 학생들은 진술의 뜻을 전하는지 의문의 뜻을 전하는지 구별하도록 하면된다.

(40) T : He's in class.

S : Statement.

T : He's in class?

S : Question.

세번째 단계는 발성 (production) 단계로서 대화의 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하나의 단어로 된 짧은 대화를 모방하는 연습부터 시작하여 점차 긴 문장이 있는 대화를 모방하는 과정을 밟는 단계이다.

A : Ready? ↗

B : No. ↘

A : Why? ↘

B : Problems. ↘

A : Problems? ↗

B : Yes. ↘

A : What? ↘

23) C. B Paulston & M. N. Bruder (1976), op, cit. p.107

B : Car.↘

이런 연습이 효과적인 이유는, 화자가 의도하는 정확한 문장의 의미를 청자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억양 유형의 모습을 짧은 대화 속에서 시작해야 학생들에게 흥미나 용이함을 주어 이해를 빨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단계를 점차 높여 긴문장의 억양을 연습시키면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V.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실제지도

영어를 바르게 알아듣고 대화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분절음에 대한 발음훈련을 넘어 강세와 리듬, 연결과 억양등에 익숙해지는 일이다. 의사전달의 면에서 볼때 다소 영어자음과 모음은 부정확하더라도 문장의 전체적인 리듬이나 억양이 바르면 원어민과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분음절에 대한 지도는 의사소통능력신장을 위해서 극히 필요한 것이다. 특히 영어를 학습대상어로 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리듬중 초분절 자질에 대한 습득이 필요하다. 본장에서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생각해 보겠다.

1. 영어 발음 지도상의 유의점

Sittler(1975)가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인 학습자들은 무강세음절이 변화하는데 익숙하지 못해 청취 이해력에 대단한 장애요소를 갖고 있으며, 영어의 기능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축약음절을 알아듣지 못하는가 하면 등시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강세음절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없고 강세음절사이 축약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어를 가르치는데 있어 발음지도시 유의할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영어를 발음할때는 축약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인식시킨다.

둘째, 강세를 받는 음절은 강하고, 빨리 분명하게 발음하도록 지도한다.

셋째, 문장속에서 강과 약 또는 약과 강의 번갈아 나타나며 같은 강이나 약 요소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므로 리듬을 잘 맞추도록 지도한다.

넷째, 억양에 따라 의미가 많이 달라지므로, 기본억양유형을 지도한다.

2. 지도의 실제

우선 중·고등학교에서는 발음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시키고 기초과정에서

분절음이 어떻게 발성되는지를 올바른 조음 방법과 조음위치를 통해 가르친 후 원어민의 발음을 계속 청취, 모방하며 발성하는 단계를 반복해야 한다. 특히 현장의 학습자들은 음절 박자 리듬에 익숙해 있어서 영어의 문장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모든 음절에 동일한 비등을 두어 명료하게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는바 강세음절을 중심으로 강요소와 약요소의 구분을 분명하게 하고 강세를 받는 음절을 강하고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때 리듬은 손바닥을 치든지 발을 구르든지하여 강요소와 약요소의 조화를 구두훈련을 통해 연습시키면 더 효과적인 훈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학습자는 녹음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강세조절과 비강세 음절을 구분하는 기회를 갖게되며 강세가 기반이 되는 억양도 점차 이해하는 습관이 생긴다.

1) 게임을 통한 발음지도

우리 교육현장에서의 영어교육이 문법번역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미있고, 생동감있게 공부할 수 있게 함은 물론 학습흥미를 지속시켜 되도록 게임을 통한 영어발음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몇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그림 퀴즈 : 스케치북, 연필, 크레파스를 준비하고 칠판을 사각형으로 나누어서 각 칸에 이미 발음연습을 통하여 배운 소리 글자들이 들어있는 이름의 그림을 그리게 한다. 각 사각형속에 수업시간에 연습한 단어의 첫번째 철자를 공란으로 두고 그려진 사물의 이름을 보고 단어를 채워가면서 첫소리를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에 맞게 크게 발음하도록 하는 게임이다.

② 숨은 글자 찾기 : 준비물은 ①과 같으며 칠판에 교사가 그림을 그리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철자로 시작하는 영어단어를 발음해 보도록 하는 게임이다.

③ 장모음 구별지도 : 준비물은 ①과 같으며 칠판의 맨위에 장모음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그림으로 번호를 붙여 그린다. 그 아래 세개의 난으로 칠판을 나누고 그 곳에 장모음이 들어있는 다른 낱말들을 나열한다. 교사가 장모음이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발음하면 학습자는 들은 장모음을 말하고, 칠판의 맨위에 그린 단어의 발음

상 같은 음으로 나눈 것을 말하도록 지도하는 게임이다.

④ 그림을 통한 지도 : 준비물은 ①과 같으며 칠판에 몇 문장을 쓰고 난 후 단어의 첫 자음들을 몇군데 빼어서 그 위에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놓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그림을 보고 첫소리가 무엇인지를 발음하는 게임이다.

⑤ 장단모음의 구별 : 재료는 ①과 같으며 칠판을 사각형으로 나누고 각 사각형에 장, 단모음이 들어있는 단어의 그림들을 그려 놓는다. 교사가 그 단어들을 발음하면 학생들은 직접 장모음과 단모음을 그림표에 표시해보도록 지도하는 게임이다. 이와 비슷한 게임은 분절음을 지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초분절음을 지도하는 경우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칠판에 몇개의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 번호를 적어 놓는다. 교사는 그 그림을 묘사하는 문장을 리듬과 억양을 맞추어 발음해 주면 학생이 그것을 듣고 그 문장이 나타내는 그림의 번호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2) 노래를 통한 발음지도

영어의 발음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으로 노래를 통한 지도법을 제시할 수 있다. 영어교육론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고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노래지도를 수없이 하고 있음을 주지하는 바와 같다.

분절음이나 초분절음의 지도는 노래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악보에 나타난 리듬은 영어에 특징적인 리듬을 연습하는데도 도움이 되므로 의사전달을 원활히 하기위해 노래를 부르도록 하면 좋은 지도가 될 수 있다. 물론 노래는 어려운 노래보다는 간단하고 쉬운 노래가 발음연습에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민요나 전통적으로 불리워져 온 노래를 영어 학습시 지도하면 훌륭한 발음연습을 하는 기회를 얻게된다. 이에 대한 Rivers (1968)의 견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Frequent singing of simple songs can establish good pronunciation habits with these sounds so long as slurring is immediately checked and attention is paid to clear articulation. many folk songs have repetitive to choruses which

provide excellent practice in the production of basic vowels.²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있는 노래는 'Are you sleeping?', 'Ten Little Indians.', 'Good morning to you.', 'What's this?', 'Red River Valley.', 'Clementine'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들 노래를 악보에 나타난 제이름을 통해 내용어는 강하게 기능어는 약하게 발음하도록 지도함으로써 리듬을 유지하도록 하면 의미 전달을 제대로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흥미를 더욱 유발하게 되어 영어교육은 발음과 내용면에서 보다 성공적인 수업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4) Wiga M. Rivers (1968),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122.

VI.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영어 학습자의 의사 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어떻게 발음 교육을 실시하면 효과적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영어 교육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의사 소통 능력을 발음 부분과 관련시켜 의사 소통 전단계의 발음 지도 활동과 의사 소통 단계의 발음 지도 활동으로 새롭게 구분하여 어떻게 지도하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밝혀 보았다.

영어 교육 이론에서 의사 소통 전단계의 활동이 주로 언어 구조나 형식을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를 발음 부분과 연관시키면 개별 분절음에 대한 지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자음과 모음의 발성을 조음 위치와 조음방법에 따라 단독으로 지도하는 활동과 상황을 부여하여 분절음을 지도하는 두 활동으로 나누어 연습시킬 수 있다.

자음과 모음의 정확한 지도와 훈련 및 확인은 모든 활동의 기본이 되지만 그것을 개별적으로 가르친 후 교사가 단어와 어구 문장 속에서 분절음을 연습시키는 것이 의사 소통 전단계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최소 대립을 이루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어구나 전체 문장 속에서 발음을 지도하되 특히 대화 속에서 발음연습을 시키면 문장의 의미를 어느 정도 전할 수 있으므로 유의적인 발음 지도가 될 수 있다.

한편 영어 교육 이론에서 다루어 지는 의사 소통 단계의 활동이 주로 전달되는 의미에 중점을 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이를 발음 부분과 관련시키면 초분절음을 지도하는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화자가 의도하는 바를 청자에게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절음을 명확히 발음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강세와 리듬, 연접과 억양등 초분절음을 잘 발음해야 하는 것이다. 발음상 의사 전달을 원활히 하기 이해 학습자들에게 초분절음을 인지시키고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초분절 체계는 초분절 단위와 큰분절요소의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습자들

에게 이에 대한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도록하여 가르치면 아주 효과적인 발음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미 다룬바 있듯이,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아무리 분절음을 잘 발음한다 해도 음절이란 큰분절 단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어의 단어나 문장을 발음할 때 불필요하게 '으' 모음을 삽입함으로써 음절을 늘리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음절, 음보, 단어, 구, 절 등의 초분절 단위를 학습자들에게 알도록 하되, 특히 강세, 리듬, 연접, 억양등의 초분절 요소도 다 음절을 기반으로 형성됨으로 음절의 중요함을 우선적으로 인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초분절 요소의 하나인 강세를 지도하는 과정은 단어강세, 구강세, 문장강세의 순으로 연접시키되 특히, 강세를 개별단어 속에서 보다 문맥이 주어진 가운데 지도하는 일이 중점도 두어야 한다. 왜냐 하면 낱말이 독자적으로 있을 때 주어지는 강세는 구나 문장 속에서 얼마든지 자연스런 발음을 위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발음상의 사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영어에 고유한 리듬을 학습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 영어는 강요소와 약요소가 서로 교대되어 일어남으로써 자연스러운 리듬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강한 음절을 중심으로 다음 강한 음절까지는 같은 시간에 발음하도록 지도하며, 강한 음절은 강하게 약한 음절은 빨리 약화시켜 발음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접도 의미전달에 큰 역할을 하므로 단어와 단어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발음하도록 하되 내개연접이 오는 경우 그 앞에 오는 음을 약간 길게 발음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짧게 발음하도록 함으로써 리듬을 이루도록 지도해야 한다.

초분절 요소 중 마지막인 억양은 음도와 말미연접으로 이루어지므로 소리의 높낮이와 문장 끝의 연접 관계를 이해시키고 기본 억양 유형을 학습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영어 교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231↓유형과 233↓ 유형 및 232→ 유형을 반복연습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지도 방법은 진술한 대로 제시 단계와 구별하기 단계 그리고 발성 단계로 나누어 시킬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등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발음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게임을 통해서 분절음이나 초분절음을 지도하는 일을 해야 하며 노래를 통해서도 분절음과

초분절음을 연수시키는 과정을 알아야 한다. 영어 학습자의 의사 소통 능력은 적어도 발음 부분과 관련시켜 관련해서는 의사 소통 전단계와 분절음 지도와 의사 소통 단계인 초분절음을 나누어 자세히 지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신장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순택 편저 (1980) 「영어 발음연구」, 서울 : 한신문화사
- 김종훈 (1990) 「음절 음운론」, 서울 : 한신문화사
- 박영수 (1982) 「신영어음운학」, 현대영어교육총서, 서울 : 학문사
- 박주현 (1989) 「영어의 리듬과 운율이론」,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손병욱 (1978) 「영어의 리듬습득에 관한 연구」, 부산·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용진 (1985) 「영어교육공학 I」, 서울 : 예지각
- 양동휘 (1984) 「영어음성학」, 서울 : 범한서적주식회사
- 이계순 (1989) 「영어교수법」, 서울 : 한국방송대학 출판부
- 이맹성의 (1990) 「High school English 1 Teacher's Guide」, 서울 : 지학사
- 정 국 (1988) 「음운론의 제이론과 외국어 발음교육」, 영어영문학 재34권 2호.
- 채준기의 (1982) 「영어영문학」, 서울 : 형설출판사
- 최진항 (1986) 「영어교수법이론과 적용」, 서울 :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1991) 「발음지도 자료」
- Allen, J. D. B(1975), "Some Basic Concepts in Linguistics," *Paper in Applied Linguistics*,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 Chomsky, N & M Halle(1968) *The Seco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 Harper & Row.
- Finocchiaro, M. & C. Brumfit(1983), *The Functional-Notional Approach : From theory to practic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Fries, C. C. (1945),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Gleason, A. C. (1961), *An Introduction to the Descriptive Linguistics*,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Gimson, A. C. (1975) *An Introduction to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Bristol : J. W. ArrowSmith Jovanovich Inc.
- Hymes, D. H.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C. J Brumfit & K. Johns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Jespersen, O. (1909), *A Modern English Grammar Part I* .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 Jones, Daniel(1960),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9th ed. Cambridge : W. Heffer & Sons Ltd.
- Marley, J. (1979), *Improving Spoken English*, Ann Arbor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Nilsen, D. L. F(1971), *Pronunciation Contrasts in English*, New york : Regents Publishing Co.
- Paulston, C. Band M. N. Bruder(1976)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chniques and Procedures*, Cambridge : Winthrop Publishers.
- Pike, Kenneth. L (1963) *The Intonation of American English*.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ike, K. L. (1963), *Phonemics. A Technique for Reducing Language to Writing*. Ann arbor : Michiqan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Rivers, W. M (1968)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vers, W. M. (1972), *Speaking in Many Tongues*. Rowely, Massachusetts : Newbury House
- Trager, G. L. & Smith Jr. (1951), *An Outline of English Structure*, Studies in Linguistics, Occasional Papers 3, Washington,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Abstract〉

Teaching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For Improving Communicative Competence

Ham, Chang-bum

English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ong-ho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iscuss what is a desirable and effective way to teach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in the classroom in order to improve communicative competence of English learners.

To do so, this thesis first deals with the meaning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two types of communication activities, such as a pre-communicative activity and a communicative activity, in connection with teaching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The pre-communicative activity, which makes the students know the linguistic forms, consists of teaching the individual segments of English and teaching them in isolated words, phrases and sentences through minimal pair drills. The communicative activity, which has the students understand the functional and social meanings of languag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June, 1992.

includes aural recognition exercises of suprasegmental sounds and exercises where the focus is on the meaning the suprasegmental sounds carry rather than on the sounds themselves.

In pre-communicative activities, the teacher must drill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segmental phonemes, making the students know the points and manners of articulation, through the technique of minimal pairs of words, phrases and sentences.

In communicative activities, the teacher should drill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suprasegmental phonemes in a communicative situation, having the students practice English stress, juncture, pitch and intonation, which can have a great influence on conveying the meanings of sentences effectively.

In the English classroom, several types of games about pronunciation and frequent singing of simple songs are desirable to establish good pronunciation habits, thereby improving communicative competence of the students.

